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80호
2023.11.09.(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 【미국】 바이든 美 대통령, AI 위험 예방을 위한 ‘AI 행정명령’ 발표
- 【EU】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에 BYD 등 3개 중국업체 선정
- 【미국】 美 공화당, ‘해외오염관세’ 기후 정책 법안 발의

주요 산업별 이슈

- 【반도체】 美, 엔비디아 AI 반도체 對中 수출통제 ‘즉시 발효’ 통보
- 【물류】 파나마 운하, 극심한 가뭄에 통행량 재감축
- 【에너지】 호주 연방법원,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중단 가처분 명령

주간 이슈 포커스

- 【EU, 바이오】 EU 집행위, 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조치 발표

원자재 뉴스 PLUS

- 【11.1주 원자재 동향】 사우디·러시아 석유 감산 연장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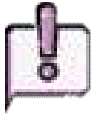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IEA의 제언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실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

바이든 美 대통령, AI 위험 예방을 위한 'AI 행정명령' 발표

- 10.30일(현지시간) 바이든 美 대통령은 AI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발표

* AI에 대한 美 정부의 첫 번째 규제 조치로, 인공지능(AI)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 »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하여 AI 모델이 국가 안보·경제·공중보건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연방정부 통지를 의무화
- » 위험한 생물학 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스크리닝 표준 개발, 오남용·사기 방지를 위한 콘텐츠 워터마크* 등 인증 방침 개발 지시

*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자발적 약속('23.7월)

- 바이든 대통령이 11.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이 AI 규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

- » 유럽이 올해 안에 AI 규제 법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10.30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은 AI 기술의 효용을 살리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11개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음

출처: 백악관('23.10.30), 동아일보('23.10.3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U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에 BYD 등 3개 중국업체 선정

- 10.25일(현지시간) 中 현지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Geely) 등 中 전기차 제조업체 3곳을 선정했다고 보도

- » 반보조금 조사에 연관된 中 기업이 많아 샘플링 방식을 통해 최종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부당한 보조금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

- » 中 기업뿐만 아니라 美·EU 기업의 전기차도 중국에서 생산하여 EU에 수입될 경우 상계관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

- 中 3개 업체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는 해당 기업이 실제 수령한 보조금 액수에 근거하여 부과될 예정이나, 그 외 모든 기업*은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 평균액에 근거하여 부과할 계획

* 中 3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中 전기차 제조사는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조금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위험이 있음

출처: 차이신('23.10.27), KBA Europe('23.10.3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美 공화당, '해외오염관세' 기후 정책 법안 발의

- 11.2일(현지시간) 美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오염(pollution) 관세를 부과하는 '해외오염관세(Foreign Pollution Free)' 법안 발의
 - » '오염 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에서 생산된 유사 상품 대비 10% 이상 시 관세를 부과하며, 배출량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
 - * 적용 품목: 알루미늄, 배터리, 바이오 연료, 시멘트, 원유, 유리, 수소, 철강철, 광물,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펄프·종이, 정제된 석유 제품, 태양전지 및 풍력터빈 등
 - » 관세 한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美 수입품 평균 배출 강도보다 50% 이상 크지 않도록 계산되며, 미국이 국내제품 수요의 5% 미만을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오염 강도 수준이 50% 이내인 경우 무관세를 적용함

출처: 美 Factsheet('23.11.02), 폴리티코('23.11.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반도체

美, 엔비디아 AI 반도체 對中 수출통제 '즉시 발효' 통보

- 10.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美 상무부는 엔비디아에 서한을 보내 최근 발표한 AI 반도체 관련 對中 수출통제 조치가 즉시 발효*됐음을 통보했다고 보도
 - * 10.17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기존 對中 수출이 제한됐던 A100·H100 등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對中 수출을 위해 성능을 낮춘 A800·H800 등 저성능 AI 반도체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 당초 엔비디아는 해당 규제가 11월 중순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여 '24년 중국에서 수주한 50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물량 중 일부를 먼저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美 정부가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금지 조치를 '즉시 유효'로 지침을 바꾸면서 모든 AI 반도체 제품들의 對中 수출도 즉각 중단되었음
- WSJ는 "반도체 수출통제로 中 AI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며, "中 기업들은 재고에 의존하거나 저사양 반도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제2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함
 - » 또한, 엔비디아 대변인은 "규제 영향을 받는 그래픽 칩을 사용하는 고급 AI 컴퓨팅 시스템의 추가 공급처를 찾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3.10.31), 아시아경제('23.10.3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물류

파나마 운하, 극심한 가뭄에 통행량 재감축

- 10.31일(현지시간) 파나마운하청(ACP)은 해운업계에 제공한 통지문을 통해 12.3~6일(현지시간) 일일 파나마 운하 통행 가능 최대 선박수를 31대→25대로 20% 가까이 축소하겠다고 밝힘 (☞ [원문 바로가기](#))
- ▶ 파나마운하청은 운하 유역 강수량 및 가뭄 호수 수량(水量) 부족으로 인해 선박 통행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24.1월에는 하루 20대, '24.2월에는 18대까지 선박 통행 규모를 차례로 줄일 예정
- 이번 조치로 파나마 운하 주변 병목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함한 연말을 앞두고 화물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 파나마 당국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체 운송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통행 정체가 대부분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약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 주요 화주와의 계약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24년까지 실제 통과 제한이 이어질 경우 추가 운임 부과 등으로 이어져 해상 운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3.10.31), 연합뉴스('23.11.0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에너지

호주 연방법원,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중단 가처분 명령

- 1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이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사의 바로사(Barossa) 가스전 해저 송유관 설치 사업* 착공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
- *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총액 53억 호주달러(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호주 산토스사 50%, 韓 SK E&S사 37.5%, 日 JERA사 12.5%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 법원은 호주 수중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및 환경 위험성 평가가 적절히 이뤄질 때까지 송유관 설치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원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
- 산토스는 '21년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 가스전에서 최대 8개의 가스전을 시추하고, 여기서 나온 가스를 호주 다윈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저 송유관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 해당 가스전은 호주 북부 티위 제도(Tiwi Islands)에서 140km 떨어져 있으며, 티위 제도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설계되면서 해당 지역 원주민들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시추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 ▶ 법원의 이번 판단에도 산토스 측은 '25년 상반기부터 바로사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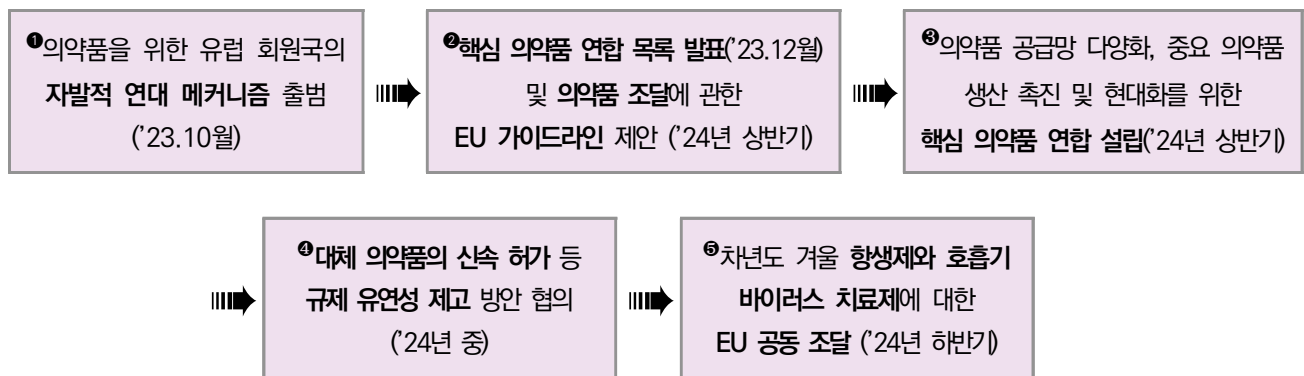
출처: 로이터통신('23.11.02), 연합뉴스('23.11.0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EU, 바이오 EU 집행위, 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조치 발표

10.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역내 의약품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한 장기적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조치 발표

EU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조치 계획 추진 동향



또한, 집행위는 장기적 차원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24년 초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 신설을 추진할 계획

핵심의약품연합(CMA)의 주요 활동

- ▶ 주요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 제약 부분의 수요에 중점을 둔 '기술 파트너십' 출범 지원
- ▶ EU 역내 의약품 원료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 EU 역내 의약품 비축에 대한 EU 공동 전략적 접근 방식 개발
 - 해당 연합의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안 예정
 - 동 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를 통해 지원

[참고]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예외적 국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
- EU 회원국이 공동 참여하는 ▲배터리 투자 프로젝트('21.1.26), ▲반도체 연구 프로젝트('23.6.8) 등이 IPCEI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음

출처: EU 주간 브리핑 ('23.11.01)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유

사우디·러시아 석유 감산 연장 재확인

- 📌 사우디·러시아는 '23년 연말까지 석유 감산과 공급 감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 11.5일(현지시간) 사우디 에너지부는 올해 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씩 지속적 감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씩 감산을 통해 석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침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사우디는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단행해왔으며, 러시아도 '23.9~10월 석유·석유제품 공급 감축 결정을 한 바 있음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1주)

◆ [비철금속] 美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주요 거래소 재고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 발생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0월	전년비(%)	10.4주	11.1주	전주비(%)
동	8,797	8,523	△3.1	7,915	8,065	1.9
니켈	25,605	22,694	△11.4	17,997	18,130	0.7
아연	3,478	2,674	△23.1	2,431	2,477	1.9

* 자료원: LME

📌 (동) 中 제조업 경기지표는 부진했으나, 미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으로 비철금속 상승 압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동 가격 상승세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동 재고량은 11.1주차 기준 176,140톤으로 전주대비 5% 감소하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니켈) 11월 미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및 12월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 거래소의 니켈 재고량 감소로 니켈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함

▶ 런던금속거래소(LME) 니켈 재고량은 43,940톤으로 전주대비 2.7% 감소, 9주 연속 증가세를 마감하여 상승요인으로 작용

◆ [철강] 中 주요항구 재고량 감소에 따른 철광석 가격↑, 계절성 수요둔화로 연료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0월	전년비(%)	10.4주	11.1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1.95	△47.8	135.37	128.39	△5.2
원료탄	364.99	289.65	△20.6	347.20	349.70	△0.7
철광석	120.26	116.15	△3.4	118.11	124.65	△5.5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메이저 BHP社 노조파업 가능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및 中 주요 항구 재고량 감소로 철광석 가격상승 압력 발생

▶ 최근 메이저 BHP社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제기로 호주 철광산 생산 차질 이슈 발생

📌 (유연탄) 11.1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80.51달러로 전주대비 5.9% 하락한 가운데 계절성 수요둔화로 연료탄 가격은 전주대비 5.2% 하락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1주)

◆ [희소금속] 中 낮은 수요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 코발트는 항공 분야 수요로 가격 소폭 상승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10월	전년비(%)	10.4주	11.1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90	△16.9	1,185	1,185	-
탄산리튬	72,290	39,844	△44.9	22,461	22,281	△0.8
수산화리튬	67,180	42,343	△37.0	19,976	19,852	△0.6
코발트	31.20	17.91	△42.6	18.00	18.05	0.3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22,038	△15.4	366,100	363,300	△0.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0,588	△39.7	72,260	72,000	△0.4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페로망간 품목 中 내수가·수출가 변동 없으며, 주요 생산업체들은 철강사의 11월 구매가격 향방 주시

📍 (탄산리튬) 시장에 충분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이차전지 셀 업체들의 현물 구매가 없는 상황 지속, 양극재 제조사는 필요 분량에 대해 최소수량 구매

▶ 中 장시성·쓰촨성 주요 생산업체들은 시장 가격이 낮아 생산량을 감축하며 추가 가격 하락을 거부했으며, 주요 염호 생산 지역인 칭하이성의 기온 하락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예상에도 가격 영향 제한

▶ 호주로부터의 스포듀민 정광 수입가는 수산화리튬 생산업체들의 타이트한 마진에 따라 하방 압력이 계속되며, 톤당 2,075달러(10.31일)로 연초 대비 약 65% 하락

📍 (코발트) 유럽 금속가는 이차전지 시장 수요부진에도 확고한 항공 분야의 수요로 소폭 상승했으며, 中 코발트 금속가는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의 구매 관망세로 단기적 산화디스프로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화 세륨은 제한된 수요에도 주요 공급업체들이 판매를 보류하며 판매가를 인상

◆ [에너지] 美·中 경제지표 부진,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 증가,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10월	전월비 등락폭	10.4주	11.1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7.75	-3.50	90.34	87.87	-2.47
브렌트유	99.04	88.70	-3.88	89.29	86.25	-3.04
WTI	94.33	85.47	-3.96	84.67	81.35	-3.33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美·中 경제 지표 부진,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 증가 가능성, ▲美 역대 최고치 원유 생산량 및 원유 재고 증가는 유가 하락에 영향

▶ 단, ▲이스라엘 지상전 강화 및 서방의 러시아 제재, ▲사우디의 자발적 공급 감축 지속 예상은 하락폭 제한



공급망 더 알아보기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IEA의 제언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3.10.10)

[원문] IEA(2023.09.26),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C Goal in Reach – 2023 Update

최근 들어 이상 기온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22년 세계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에너지시스템 전환이 1.5도 목표에 부합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구 온난화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IEA가 제시하는 조언에 대해 알아보자.

IEA의 1.5도 목표 달성을 '2023년 넷제로 시나리오'

- ▶ '21년 IEA는 '2050 넷제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1년 이후의 에너지정책, 기술, 시장, 공급망에서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갱신된 '2023년 넷제로 시나리오'를 발표('23.9월)
- '2023년 넷제로 시나리오'는 광범위한 청정기술 포트폴리오를 보급하고 토지 이용 수단으로 부터 상쇄 없이 '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부문이 CO₂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하는 시나리오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① 신규 석탄·석유·가스 투자는 불필요

- ▶ (수요 전망)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청정에너지 보급이 촉진되어 화석연료의 수요는 '30년 25%, '50년에는 8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석탄 수요) '22년의 5,800Mtce에서 '30년까지 3,250Mtce로, '50년까지 약 500Mtce로 축소
- (석유·가스 수요) 석유는 1억b/d에서 '30년까지 7,700만b/d, '50년까지 2,400만b/d로 줄어들며, 가스는 '22년 4,150Bcm에서 '30년 3,400Bcm, '50년 900Bcm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 ▶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상류부문의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나 석탄광산 개발·확대, 저감장치 없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투자는 불필요하지만, 기존 석유·가스 자산과 기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필요
- ▶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투자 감소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가 순서에 맞게 적절하게 발생하는 것이 중요
- ▶ 화석연료 의존도가 감소하면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위험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며, 특히 복잡하고 신뢰도가 낮은 지정학적인 환경에서는 에너지안보 위험이 지속될 수 있음

② 개도국에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가 중요

- ▶ '23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는 1조 8,000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IEA의 탄소 중립 경로에 부합하는 연간 투자 규모는 '30년대 초까지 약 4조 5,000억 달러까지 도달하는 것이 필요
- 청정에너지 투자는 더 낮은 연료비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보상되며, '50년 까지 에너지부문의 투자와 연료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30년대 초까지 청정e 투자가 7배로 급증할 중국을 제외하고, 신흥국과 개도국에 청정e 투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증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화된 국제지원과 국가정책이 필요
- 신흥국과 개도국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양허성 자금지원 규모는 '30년대 초까지 연간 약 800~1,000억 달러까지 증대될 필요가 있음

③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행

- ▶ **(핵심광물)** 핵심광물의 수급 격차 해소에 특히 주의가 요구됨. 니켈과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의 발표된 채굴 프로젝트는 넷제로 시나리오 상에서 '30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신규 프로젝트, 혁신적인 채굴 기술, 재사용 확대, 효율적인 소재사용 등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 **(청정에너지기술)** 이 분야에서 괄목만한 성과로 탄소중립 달성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지리적으로 일부 국가에 청정e기술이 집중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더욱 다변화되고 탄력적인 공급망이 바람직하며, 개방적인 공급망 구축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어려움
- ▶ **(전력 안보)**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전력'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새로운 석유(new oil)'로 부상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증가가 필요
- 이에 따라 ▲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설비와 수요반응(DR) 확대,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송·배 전망 확대 및 현대화, ▲ CCUS 연계 화석연료 화력, 수력, 바이오메스, 원자력,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의 급전 가능한 무탄소 발전설비가 요구됨
- ▶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30년까지 신흥국과 개도국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이 현재 수준 대비 12% 감소하고, 선진국에서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전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대량 절감에 기인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특히 저 소득층 가구가 청정에너지기술의 초기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④ 1.5도 제한 위한 국제협력과 절박함 필요

- ▶ '35년까지 선진국의 배출량은 '22년 대비 80% 감축되어야 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60% 감축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만으로는 2050 탄소중립 경로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평한 경로 이행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이 각자가 제시한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각국은 자국의 자원과 상황에 바탕을 둔 각자의 경로를 따르지만, 모든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동이 요구됨
- *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넷제로 달성 시점은 선진국이 '45년, 중국이 '50년, 기타 신흥국과 개도국이 '50년 이후로 예상
- ▶ 많은 경제주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에너지부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
 - 기후목표 달성이라는 압박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에너지안보 필수사항, 신에너지 경제에 수반되는 일자리와 산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과정이 1.5도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추진하고 촉진시켜야 함
 - 또한,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 국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도전과제를 정립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공급망 소식통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 개최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고, 미중 패권경쟁, 중국 수출통제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생생한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3.11.16(목) 14:00~17:20 /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 주제 : 핵심산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리스크 관리'
- » 참석대상 : 국내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별 협단체 등 200명 (선착순 마감)
- » 프로그램 : 공급망 포럼, 공급망 컨설팅 부대행사 추진

세부 프로그램 * 동시통역 지원 예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05)	개회사		KOTRA
14:05-14:10('05)	축사		산업부
14:10-14:40('30)	[Keynote] New US Export Controls and Their Impacts on Global Supply Chain		Kevin Wolf Akin Gump (前 미국 상무부 차관보)
14:40-15:10('30)	[배터리] Shifting Battery Supply Chai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toine Vagneur-Jones BloombergNEF
15:10-15:40('30)	[자동차] 북미 자동차 OEM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및 밸류체인 요구사항		한동기 박사 General Motors
15:40-16:00('20)	커피브레이크		
16:00-16:30('30)	[반도체] 반도체산업 공급망 재편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도전과 기회		조은교 박사 산업연구원
16:30-17:00('30)	[ESG] 글로벌 공급망과 ESG, 사례로 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관리		연경흠 상무 딜로이트
17:00-17:20('2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소개 및 사업 안내		KOTRA
부 대 행 사	무료 컨설팅관 운영 (12:00-15:00)		
	KOTRA 컨설팅관	공급망 ESG 컨설팅관	
	소부장 공급망센터 홍보관	딜로이트 쏫-컨설팅1	딜로이트 쏫-컨설팅2

※ 참가 신청은 우측 하단 QR코드 참고

포럼 문의

- » 관련 문의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 02-3460-7764)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실시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원자재 가격상승, 각종 환경 규제 등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은 몇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신 **100분께 커피 쿠폰**을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개요>

- 설문목적: 국내 기업의 공급망위기 인식 및 대응현황 조사
- 설문대상: 기업체 소속 임직원
- 설문기간: 2023.11.07 - 2023.11.20
- 문의: 코리아리서치 최지혜 책임연구원 (☎ 010-6240-9420)



QR코드

설문조사 QR코드 또는 하단 URL 링크로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URL링크 (👉바로가기)

글로벌 경제지표 (23.11.7.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0말	11/3	11/6	11/7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350.50	1,322.40	1,297.30	1,307.90	0.82%	3.43%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48.60	1,320.50	1,295.90	1,306.10	0.79%	3.22%
₩/CNY	186.51	181.44	184.60	183.20	178.51	179.56	0.59%	△1.04%
₩/¥100	1,032.48	945.56	899.73	879.96	867.39	869.67	0.26%	△8.03%
Y/US\$	115.14	133.73	150.10	150.28	149.56	150.39	0.55%	12.46%
US\$/EUR	1.1318	1.0617	1.0604	1.0629	1.0739	1.0704	△0.33%	0.82%
CNY/US\$	6.3681	6.9630	7.3168	7.3160	7.2826	7.2814	△0.02%	4.57%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6.3 (₩/¥100) 939.0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1.6(전일)	'23.11.7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6.89	85.04	△1.8	13.2	6.3
						△2.1%	18.4%	8.0%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7.10	126.10	△1.0	46.6	8.8
						△0.8%	58.6%	7.5%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136.50	8,068.00	△68.5	1068.0	△319.0
						△0.8%	15.3%	△3.8%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54.00	2,241.00	△13.0	161.0	△119.5
						△0.6%	7.7%	△5.1%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7,865.00	17,585.00	△280.0	△1515.0	△12840.0
						△1.6%	△7.9%	△42.2%

반도체

	'21	'22	'23.8월	'23.9월	'23.10월	11/2	11/3	11/6	11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46	1.48	1.55	1.61	1.60	1.61	1.61
(%, YoY)	29.9%	△23.0%	△47.2%	△41.3%	△35.6%	△25.8%	△25.8%	△25.6%	△25.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2	6.32	6.40	6.42	6.42	6.42	6.42
(%, YoY)	14.7%	10.7%	△3.8%	△3.8%	△2.6%	△1.7%	△1.7%	△1.7%	△1.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0.13	10.20	10.27	11.3	전주비(10.27)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891.55	917.66	1012.6	1067.88	5.5%	△3.6%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1.1	11.2	11.3	11.6	11.7	전일비(11.6)	'22년말비
BDI	2217	1515	1401	1385	1462	1523	1559	2.4%	2.9%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